

인천지역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



▲ 인천지역 기계설비 분리발주 확대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인천광역시회 사무처 직원들(오른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일규 사무처장, 백정현 대리, 류원식 대리)

1. 회원사 현황

1) 연도별 등록업체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업체수	264	253	274	266

2) 구·군청별 등록업체 현황

구·군청	업종		업체수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공업	
중 구	5	1	5
동 구	20	8	27
남 구	32	7	35
연수구	12	5	14
남동구	68	19	78
부평구	30	9	36
계양구	20	13	28
서 구	31	9	39
용진군	1	-	1
강화군	3	-	3
합 계	222	71	266

2. 인천광역시회에서 하는 일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활성화 추진위원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인천시회와 지역 내 각 발주기관들이 그 동안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반영하여 지역 업체 원·하도급 공사 수주율 향상과 공사 발주부서·관련 건설협회·건설업체간 상생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건설산업 정보제공 확대 및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적극 추진

2) 산학협력 추진

중소설비건설업체들의 기술경쟁력강화를 위하여 2005년 한국폴리텍 II 인천캠퍼스를 비롯해 한국폴리텍 I 서울정수캠퍼스와의 산학협력 및 교류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의 애로기술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도, 근로자들의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산·학 정보교류, 공동기술 과제 개발, 중소기업직업훈련 컨소시엄 사업참여, 등을 통하여 지역 내 중소설비건설업체들의 기술경쟁력 향상

산학협력을 통한 학생의 현장실습(인턴사원제) 및 취업 지원을 함으로써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와 지역내 설비건설업체들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는데 기여

3) 법률 자문위원 운영

그동안 중소설비건설업체들이 법률적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하도대금에 관한문제, 채권가압류 및 채권·노임에 대한 압류문제, 계약해지에 따른 피해보상방법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목하여 기존 협회의 고문 변호사 뿐만 아니라 고문 법무사를 선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호간 다이렉트 법률자문 서비스 제도를 구축하여 회원사들에게 법률적 혜택 구축

4) 회원사 교육지원사업 추진

타 시·도회와 더불어 회원사의 경영지원과 임·직원들의 업무 능력향상을 위하여 건설계약, 건설공사 노무실무,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실적신고 교육 등을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협회 내에서의 교육 뿐 아니라 외부기관의 교육행사의 경우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교육 참여의 기회 부여

5) 불우이웃돕기

지역 내 건설관련단체들과 더불어 사회복지법인인 밥상공동체와 인천연탄은행에 쌀과 연탄 전달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설비건설업계의 위상 찾기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실시

6) 정부위탁 업무의 공정수행

설비건설업체들의 건설공사실적 신고를 통한 시공능력 평가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업무로서 매년 인천지역 180여

업체의 신고서류 검토에 있어 투명하고 엄정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있으며, 인정기능사 인정 제도를 통한 서류심사, 기능심사를 통해 총 202명의 기능사 배출

3. 인천광역시회 공사 수주환경

1) 건설공사 기성실적 현황

2007년도 인천지역 181개 업체가 신고한 건설공사 기성실적은 3,809억 원으로 2006년 2,983억 원과 비교해 27% 증가 했으며, 전국 평균 6~7%의 증가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기성실적 상위 10개 업체들의 기성실적이 전체 기성실적의 50%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기성실적 10억 미만인 업체가 88개사로 실적신고업체의 50%를 넘고 있어 타 시·도회와 다름없이 인천지역 설비건설업계도 양극화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인천지역 공사수주환경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 검단 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으로 지역건설경기는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08년 인천시 공공공사 발주예정액 3조804억원으로 '07년도 계약금액 1조3,469억 보다 1조7,335억원 증가)

그러나 대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형건설사들의 지역업체 하도급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인해 협력업체 등록이 제한적이며, 가격경쟁의 비교열위로 공사 수주가 사실상 어렵다.

또한 도시재생사업 등 PF사업의 경우 소규모 지역업체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공사실적의 양극화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검업제한폐지시행)으로 건설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3) 수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지역건설활성화추진위원회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인천시에 직접 건의하는 한편, 관내 발주기관장 및 대형건설

업체 CEO(지사장)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설비업계의 어려움을 호소, 이를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불합리한 입찰공고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입찰조건 개선(발주처방문 및 유·무선 변경공고요청)에 주력하며,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자유경제실천연합 등 관내 경제단체와 공조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주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4. 인천광역시의 주요 발주기관 현황 및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1) 주요 발주기관 현황

인천지역의 주요발주 기관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해 각 구·군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인천지하철공사,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검단개발사업소, 인천관광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인천시교육청(동부, 중부, 남부, 북부) 등이 있다.

2) 분리발주를 위한 노력

인천광역시와 시의회를 비롯하여 인천시산하 각 발주처별 방문 또는 지역건설활성화회의, 각종 간담회, 포럼, 공청회 등에 분리발주를 주요안건으로 산정토록 노력해 대내·외적으로 분리발주의 당위성과 취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분리발주 홍보를 대형건설업체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3) 분리발주 활동성과

지속적인 분리발주홍보와 건의결과 지난해 7월 인천광역시에서는「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추진계획」을 시 산하 발주기관에 시달하여 현재 시, 사업소, 구·군, 공사, 공단 등에서 시행중에 있다. 이를 계기로 인천광역시회는 분리발주 범위 확대와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니인터뷰 - 전태근 인천광역시회 회장

분리발주 당위성을 인천광역시에 건의, 시 산하 기관에 '분리발주추진계획' 시달 성과 거뒀

우리 인천광역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으로 도심전체가 공사장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지역건설경기가 매우 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인천지역 업체에게는 畫中之餅(화중지병)과 같아 이 모든 상황을 남의 집 잔치 구경하듯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일반 건설업체의 경우 지역건설업체는 외면한 채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사 지역 업체에게 하도급을 준다고 해도 전체 하도급 물량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회원사들이 3,700억원의 (전년대비 38%증가)실적을 올린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에 협회 회장으로서는 미안함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도약할 수 있는 자신감과 힘을 얻었다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분리발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최저가 낙찰제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전태근 인천광역시회 회장

이를 바탕으로 우리회원사 모두가 적극적으로 수주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올해 5,000억 이상의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회원사들의 수주환경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 분리발주 수주 정착

인천광역시회는 분리발주 정착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인천시에서 그 산하기관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추진계획'을 시달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타 지역 회원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과지만, 아직 공사수주 일선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미흡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회는 올해를 '분리발주정착의 해'로 만들기 위해 각 구·군 등 지자체발주 공사에 대해 분리발주시행 여부를 모니터링 하여 각 발주처에 분리발주의 의미와 그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 및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개정된 건산법에 EHP, GHP, 지열 등 냉·난방 시설은 물론 에너지관련 시설공사 등 우리 설비건설업의 업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회 회원사 모두는 이러한 변화들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제조업의 전략과 같이 우리설비도 다양한 기술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수플랜트, 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열병합발전설비 등, 특수한 설비공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우리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들을 수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오늘날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최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는 우리 모두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 지양

우리는 물가상승과, 최저가낙찰제, 과다경쟁(덤핑수주) 등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기계설비는 건축물에 있어 우리 인체의 혈관과 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착공에서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업종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무조건적인 최저가낙찰제와 덤핑수주는 우리 모두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최저가낙찰로 인한 덤핑수주는 곧바로 공사품질과 연관되는 만큼 우리업계의 신뢰 문제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한번 무너져버린 신뢰를 다시 세우기에는 더욱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우리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양한 기술력의 확보

얼마 전 개정된 건산법에 EHP, GHP, 지열 등 냉·난방 시설은 물론 에너지관련 시설공사 등 우리 설비건설업의

업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회 회원사 모두는 이러한 변화들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의 제조업 전략과 같이 우리설비도 다양한 기술력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특수플랜트, 지역난방공사, 열배관, 열병합발전설비 등 특수한 설비공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향상시켜야 우리지역에서 발주되고 있는 공사들을 수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스스로 기술력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오늘날의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 본회의 설비건설 발전 방향에 적극 동참

끝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설비건설발전방안 추진은 우리업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우리협회가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역점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사회 회원사들은 본회는 물론 전국 시·도회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사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고, 역동적이고, 낱이 발전하는 인천광역시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